塩竈に残った神棚と竃

宮城県の中央にあり、陸奥国一宮・鹽竈神社の 門前町として知られる塩竈市。鹽竈神社の末社 である御釜神社には、製塩法を伝えたと言われる 鹽土老翁神が祀られている。塩竈はその地名にも あるように、古くから塩づくりが盛んだった土地だ。 『合同会社顔晴れ塩竈』は、"塩の聖地"であるこの 町を活性化させるために5年前に設立。水産加工 業を本業とする及川さんの工房の一部を改装し、2 年前から昔ながらの製法で塩をつくり続けてきた。

あの日、塩竈の町も津波に襲われ、工房も神棚と 竃だけを残してすべてが流された。

「友人が亡くなり、先輩も奥さんを失い、後輩は家 族を失いました。私たちのまわりには、そういうこ と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工房も神棚と竃し か残りませんでした。こうした現実を見たときに、 "我々がいち早く復興して、町のみんなと一緒にス クラムを組んで乗り越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と思いました」

こうして『顔晴れ塩竈』は、5月16日に塩づくり を再開。及川さんは復興のために"スピード感ある 町づくり"が重要だと話す。

「家を失い、仮設住宅に入居する人もたくさんいま す。そうした人たちが安定的な給与をもらえるよう な産業をいち早く立ち上げないと、町そのものが沈 んでしまう。塩竈は生マグロの水揚げ、かまぼこの 生産が日本一です。かまぼこ屋さん、お菓子屋さん、 みんな工場がダメになってしまった。復旧するため には1億、2億の資金が必要になる。ただでさえ、厳 しい状況下でしたから借財もあるでしょう。 さらに 二重の借財を抱えてできるでしょうか?」

海のことは、 海のそばで伝えていく

及川さんは今、"塩"を中心にして再び塩竈に活 気を戻そうと考えている。そのひとつが塩竈の歴史 を語れる"塩ミュージアム"を海に近い場所につく ることだ。

「どこの故郷にも、埋もれている"お宝"があるはず です。それを掘り起こして、まちづくりや地域活性 化のために動かしていきたい。ここは海の町です。 海の者が山へ行って仕事はできないんですよ。海 のこと、港のことを伝える人間が山の上で伝えるわ けにはいかない。海のにおいを感じながら、そこを 訪れた人が我々と同じ気持ちになって、海を感じて faced with much debt. Is it possible to double 帰っていく。そのためには、海の近くでなければ意 味がない。"もし津波がきたらどうする?"と尋ね られたら、私は"逃げればいい"と答えます。津波で 施設がやられても、人が逃げられたらいいんですよ。 施設はまたつくればいいんですから」

"塩ミュージアム"建設にあたり、問題となるのは やはり資金。瓦礫の撤去、仮設住宅の建設などに 奔走する行政には頼れない。そこで、及川さんは町 の人たちの力で施設をつくりたいと考えている。

「100円でも200円でも金額はいくらでもいいんで す。塩竈市民から寄付をいただきたい。そのお金に は、みなさんの気持ちも含まれているので、必ず後方 支援をしてくれるはずなんです。県外に住む知り合 いや親戚に"いい施設があるよ"と宣伝してくれる。 つまり、寄付をいただいたみなさんが"営業マン"に なるんです。こんなに力強いことはないですよ」

The surviving family shrine and hearth in Shiogama, the "sacred place of salt"

Shiogama City is known as the temple city of Mutsunomiya Shiogama Shrine, located in the centre of Miyagi prefecture. In Okama Shrine, the sister of Shiogama Shrine, the deity which is said to have taught the secret of making salt is enshrined. Just as the name Shiogama suggests (translated as place of salt making), this city has a long history of salt production. The company Gambare Shiogama was established 5 years ago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of this area which is known as the "sacred place of salt". Fumio Oikawa, whose main occupation is fish processing, renovated a part of his workshop and for the last two years has been implementing the traditional method of salt making.

Then, the tsunami came and destroyed Shiogama, leaving Fumio with only the family altar and the hearth.

"I lost my close friends, my senior lost his wife, and my younger colleague lost his whole family. Such events were happening all around me. In the workshop, only the family altar and the hearth remained. When I took in this reality. I



thought 'we have to recover from this disaster as soon as possible. We have to come together as a town and form a team."

With this in mind, on 16th May salt production at the Gambare Shiogama Company restarted Fumio expresses the urgent importance of rapid community regeneration.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lost their homes and are living in temporary housing. But if we do not set up an industry which can generate an income for these people, then the town will sink. Shiogama has the best production of minced tuna in Japan. But now the factories and workshops of this important industry, as well as those for the production of sweets and other goods, have all been destroyed. In order to repair these facilities 10,000,000, 20,000,000 yen is required. But in these circumstances we are our debts and still go on?"

Telling the things of the sea, by the sea

Fumio is now considering salt as the key element in the regeneration of Shiogama. One such method of revival is to establish a Salt Museum close to the sea which will provide an overview of Shiogama's history.

"In any home town there exists a buried treasure. I want to unearth this and set it to work for the redevelopment of this area. This is a sea town. People who work on the sea cannot go into the mountains to work. People who know only the sea and port cannot simply go to the mountainside to share their knowledge. While sensing some kindred spirit with the sea, we want the museum visitors to share our feelings and experiences. So if the museum is not by the sea, it has no meaning. If I am asked 'What will you do if another tsunami comes?', my answer would be to run away. Even if such a facility is taken by a wave, as long as we can escape then another museum can be built."

The main problem in undertaking the construction of the Salt Museum is lack of funds. But they cannot rely on such support from the authorities who are concentrating their efforts on clearing the rubble and constructing temporary housing. Therefore, Fumio wishes to create this space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people.

"Just a small donation of 100 yen, 200 yen anything is fine, I just want to receive the support of the people of Shiogama. The money is accompanied by the people's sentiments. and their moral support will give much logistic backing to this project. I would also like them promote it to friends and relatives outside of the prefecture so that, in some way, each person who makes a donation becomes a sales person for the project. This is surely a strong way to raise funds.

'소금의 성지' 시오가마에 남겨진 카미타나와 아궁이.

미야기현이 중앙부에 위치하며, 무스노쿠니 이치노미야이 충인구 안에 있는 마

염법 (소금을 만드는법) 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엔도오지라는 신을 모시고 (고르는 말)을 단에는 것으로 올라져 처른 근로모시되는 돈을 모시고 - 시오가마는 지명에서 알수 있듯이 오래전 부터 소금생산으로 유명했던 동네 - '합동회사 간바레 시오가마' 는 '소금의 성지' 인 이 마을을 활성화 하고자 5 전에 설립되었다. 수산 가공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던 오이카와씨는 공방의 일부

를 개조하여 2년 전 부터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어 오고 있다 . 그날 , 시오가마의 마음들도 쓰나미에 의해 , 카미타나 (주역 : 집안에 신을 모시는 선반) 와 아궁이만 남겨진채 모든 것이 휩쓸렸다 . '친구가 죽었고 , 선배는 집사람 을 잃었고 . 후배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 우리들의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를 닮았고, 구메는 가족들을 닮았습니다. 구디들의 구면에는 그단 것들이 마침미에 했어요 ... 공방도 카미타나와 아궁이만 남아 있었어요.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우리들이 가능한 빨리 힘을 내어, 마을 사람들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지 않

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으러간되었다. 고 6~1했어요. 이렇게 해서 안반테게 시오가마'는, 5월 16일에 소금 생산을 재개하였다. 오이카 와씨는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스피드감이 있는 마을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 한다. '집을 잃고, 가설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을 가능한 빨리 만들지 않으면 , 마을 자체가 침체되어 버리죠 . 시오가마는 참치의 수확량과 어묵의 생산량이 일본 1 위 입니다 . 어묵을 파는 가게 , 과자를 파는 가게 , 모든 공장들이 없어져 복구를 위해 서는 1 억. 2 억엔의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니 부채들도 있 을 거에요 . 이중의 부채를 안고서 할 수 있을까요?"

바다의 의미는, 바다의 곁에서 전해간다.

오이카와씨는 지금 , '소금' 을 중심으로 다시 시오가마의 활기를 되찾으려고 생 각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시오가마의 역사를 보여줄수 있는 '소금 박물판'을 바다에 가까운 장소에 만드는 것이다. "어느 곳이든지, 고향에는 묻혀있는 '보물'들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발굴하여 마

을 재건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고 싶어요. 여기는 바다의 마을이에요. 바 다 사람이 산에 가서 일 할 수는 없잖아요. 바다의 의미를, 항구의 의미를 전해 줄 사람이 산위에서 전해 줄 수는 없지요. 바다 냄새를 느끼면서, 그 곳을 방문한 사람 이 우리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 바다를 느끼고 돌아가는 것 . 그러기 위해서는 , 비 다에서 가깝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쓰나미가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려 고 ?" 하고 질문한다면 , 나는 "도망가면 되지" 라고 대답해요 . 쓰나미에 시설이 당 하더라도 , 사람이 도망갈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 시설이야 다시 만들면 되

'소금 박물관'의 건설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자금이다. 잔해들의 철거 , 가 설 주택의 건설등에 분주해 하는 행정기관에만 의지할 수 없는 노릇이다 . 그래서 카와씨는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시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 "100 엔이든 200 엔이는 금액은 얼마라도 좋아요. 시오가마의 시민들에게 기부받고 싶어요. 그 돈에는 모두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뒤에서 지원해 줄 거라고 봐요. 타지에서 살고 있는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좋은 박물관이 있어" 라고 선전해 주겠 죠. 결국 기부해준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 이 되는거죠. 이렇게 강한 힘은 없다

留存于 "盐的圣地" 盐竈的神龛和灶

お露市位于宮城县中央、以陆奥国一宮・お竈神社前方发展之市镇而闻 御釜神社附属于盐竈神社,供奉教导人民制盐法的盐土老翁神。盐竈 地如其名, 自古制盐业兴盛。五年前, 为使 " 盐的圣地 " 有更好的发展, 『颜晴盐竈责任有限公司』成立。以水产加工为本业的及川先生改造了一 部分的工作坊,两年前开始以古法制盐。

地震发生时,盐竈被海啸侵袭,除了神龛和灶,其他全被水冲走。 「我的朋友去世了,前辈也失去了妻子、晚辈失去了家人。我们的身边有 很多这样的例子……。我的工作坊也只剩下神龛和灶。当我看到如此残酷 的现实, 脑中所想的是 "我们一定要早日复兴, 和镇上的大伙同心协力, 『颜晴盐竈』在 5 月 16 日重新开始制盐。及川先生表示,为了顺利复

兴,"有速度感的城镇再造"是很重要的。 「许多人失去家园,暂住在临时住宅里。如果不让那些人有稳定的收入,

城镇本身就会没落。盐竈这里捕捞鲔鱼和制作鱼板的数量是日本第一。鱼 板店、零食店、大家的工厂都损坏了。为了重新出发,需要一两亿的资 金。但是从以前经营就十分吃力,也有债务,现在还能够再负担第二次负

在大海旁流传海之声

及川先生现在的想法是,以"盐"为中心让盐竈地区再现生机。其中一 项构想,便是在邻近大海的地区设立传述盐竈历史的"海盐博物馆"。 「不管故乡在哪、都会有埋藏着的"宝藏"。我想挖掘出这些宝藏、藉此 进行城镇再造与地区活性化。这里是海洋小镇。生活在这里的人是没办法 到山上去讨生活的。要述说海洋和港口的故事, 也是无法在山上说的。来 访的人们一边感受海的气息,一边体会我们的心境,再回到故乡。因此, 不在海边就没有意义了。如果有人问我"海啸来了怎么办?"我会说 那就逃吧"。就算这些设施被海啸吞没,只要人没事就好了。设施只要再 盖就有了。

要建造"海盐博物馆",资金是个问题。行政体系致力于清除瓦砾、设 冒临时住字。无法再出手帮忙。及川先生希望由小镇的镇民出力建设。 「不管 100 元还是 200 元都好。希望盐竈市民能够捐款。捐助的金钱代表

大家的期待。一定会继续支援博物馆。会向外地的朋友和亲戚宣传「这是 个好博物馆」。也就是捐钱的大家会成为"宣传员"。没有比这效果更棒





(上) 御釜神社では、7月4日に花渕浜で海藻(ホンダワラ) を刈り取る神事、翌5日に神釜の水替神事、6日に古式に のっとり藻塩焼神事が行なわれている。(下)工房にある神 棚の真下まで津波が押し寄せた。及川さんが工房に戻った

ときには、この神棚と竃のみが残っていたという。

(Above) At Okama Shrine on 4th July a special ceremony is held for the reaping of seaweed at Hanabuchihama. The next day a ritual is observed in which water is replaced in the shrine's hearth, and on 6th an ancient rite is observed in which salt is produced.(Below) The tsunami entered the workshop just as far as the family altar. When mio returned to the workshop, only the family altar and hearth remained.

【合同会社 顔晴れ塩竈】日本唯一の塩づくり神事「藻塩焼 神事」の製塩方法にならい、塩づくりを行う。海藻と海水 で丁寧につくられた塩の結晶は美しく、塩竈はもとより、 国各地から注文を受けている。/ 宮城県塩竈市港町2丁目 15-9 ▶URL: http://www.mosio.co.jp

[Gambare Shiogama Company] This company produces salt based on the only traditional religious ceremony for salt making in Japan. Salt is made carefully from seaweed and seawater, forming beautiful crystallizations which receive ord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Miyagi Prefecture Shiogama City Minatomachi 2-15-9 URL: http://www.mosio.co.jp

当事者になって はじめてわかったこと

震災後、一気にその名前が世界中に知られるこ とになった"福島"。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ばかりが 伝わってしまうなかで、自分たちの町が持つ"良い もの・宝"を発信していこうと活動する団体がある。 それが福島第一原発から50km圏内にあるいわき 市小名浜出身者で結成された『地域活性プロジェ クト【MUSUBU】』だ。メンバーである末永さんは、 いわき市でフェアトレードのコーヒー豆を販売する 『株式会社 ethicafe』の代表でもある。末永さんの 支援活動は震災直後、【MUSUBU】の立ち上げ前 にさかのぼる。

「原発建屋が水素爆発を越こした|日目に家族会 議をして、そのときは自宅にとどまりましたが翌日、 もうひとつが爆発したときには"ここを出よう"と、 東京に住む兄のところに避難しました。ただ、地元 に残った友人たちから"地震以降まったく物資が 入ってこない"と聞いたので、いてもたってもいられ なくなり、"(物資を)自分で持って帰ろう"と考え ました」

ツイッター上で物資・ドライバー・トラック募集の 呼びかけを行ったところ、100名以上の人たちが集 まり、トラックI台分の物資とドライバーを確保。す ぐさま小名浜へ向かい、翌日には仕分けの協力を ツイートした。すると、地元の若者15名ほどが軍 手とマスク姿で集まってくれたのだ。その後も支援 物資の配布や炊き出しなどの活動を行っていたが、 徐々に必要とされることも変化する。4月13日に支 援物資部隊をひとまず解散し、次の活動に移りは じめた。

「復旧・復興活動だけでなく、長期的な地域活性を 視野に入れて活動をしていこうと考えました。そし て、一緒に活動していた地元出身者で『地域活性 プロジェクト【MUSUBU】』を立ち上げました。そ の名の通り、"人と地域と世界を結ぶ"という意味 を込めています。今回の震災を通して、はじめて自 分が当事者になりました。そしてあらためて"いか に外の人たちに関心を持ち続けてもらうか?"とい うことが大切なんだと痛感しました。情報を発信し 続け、これからも"福島で起きていること"を見続け ていただきたいです」

"助けて"のメッセージから、 宝を伝えるメッセージへ

いわきから明るいニュースを世界に発信するべく、 【MUSUBU】は音楽イベント、スポーツイベント、仮 設住宅に入居した人たち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づ くりのための"場づくり"を企画している。6月26 日には、津波の被害を受けた小名浜潮目交流館で

『Hooked on Iwaki Vol.I ~小名浜潮目交流館をキ レイにして音楽を聴こう!~』を開催。まだ泥が残 り、もちろん電気も通っていない会場を整備すると ころからのはじまりだった。

- "Hooked on"には"夢中になる・ハマる"という意 味があるんですが、このイベントをきっかけに小名 浜が復興に向けて一歩踏み出したというのをメッ セージとして発信していけたらと。会場となった小 名浜潮目交流館は津波で大きなダメージを受けて いましたが、前日の25日にボランティアの方に呼び かけて泥の掃除をして、発電機を入れて、照明をつ けて、翌日のイベントに備えました。10年ほど前に いわき市の海岸でプロモーションビデオを撮影した ミュージシャン"くるり"に参加していただき、大雨 の中、多くの方に集まっていただいて、とてもあた たかい雰囲気のイベントになりました」

テレビや新聞など、いわゆる"ニュース"の中に登 場する"福島"の文字は、不安や悲嘆とともに私た ちの目に入ってきてしまう。しかし、その外側には そこで暮らす人たちの生活があり、文化があり、新 しく生まれていくものもある。【MUSUBU】が発信 するのは、そうしたところにある"宝を伝えるメッ

「【MUSUBU】は常に"ワクワクすること"をやろう と考えています。"誰かのために・誰かが困ってい るから"ということよりも、まずそれに携わる私た ちがワクワクするかどうかを大切にしているんです。 そのことによって、携わってくださった方が一緒に ワクワクして、それがみなさんに伝わればいいなと 思います」

Things I have realized since I became a victim

In one stroke after the quake the word "Fukushima" became known across the world. With the constant transmission of negative images, a group of locals have decided to undertake efforts in the promotion of the treasures and all the goodness of their town This is a group based in Onahama, Iwaki city, Fukushima prefecture, going under the name of "Community Activation Project MUSUBU". One of the members, Sayaka Suenaga, is also the representative of "ethicafe Ltd.", a company which sells Fair Trade coffee beans in the city of Iwaki The support activities Sayaka has been involved in date back to directly after the earthquak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MUSUBU".

"The day there was an explosion at the nuclea plant, we held a family meeting, and stayed the night shut-in at home, but when there was another explosion the next day, we decided "let's get out of here", and evacuated to my brother's home in Tokyo. But upon hearing from a close friend that they had received no supplies since the earthquake I decided to gather materials and

After making an appeal for supplies, a driver

and a truck on twitter one hundred neonle gathered, and a truckload of goods and a driver were secured. Swiftly setting out for Onahama, the next thing was to find people who would cooperate with distribution, again through twitten As a result, fifteen local volunteers equipped with gloves and masks came to her aid. After that, activities to deliver aid and prepare meals still continued, but the things that were needed gradually changed. On April 13, the aid group was dissolved for the time being, and the move to

another initiative began. "Not just focusing on restoration / regeneration support. I also gave consideration to the longterm re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through our activities. In continuing to do these activities for the foreseeable future, I wanted people in the community to remember the name of our group, so I launched "Community Activation Project MUSUBU". As the name states (MUSUBU means 'connect" in Japanese), the meaning can be extended to the idea of "connecting people, communities, and the world". Through the disaster I have become a concerned person and I strongly felt the importance of gaining the concern of people elsewhere too. While continuing to distribute information, I want people to keep an eye on what is happening in Fukushima."

From help messages, to messages of treasures

Wanting to transmit bright news from Iwaki to the world, "MUSUBU" has been organizing music events, and creating a "space" encourag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staying in temporary housing. On June 26 at the Onahama Shiome Cultural Exchange Center, a place suffering serious damage from the tsunami, the event "Hooked on Iwaki Vol.1 ~ Let's clean up Onahama Shiome Cultural Exchange Center and enjoy music together!" was held. It began with a clear-up of the space where mud still remained and where, of course, there was still no electricity.

"The words "Hooked on" mean "to lose yourself or get wrapped up in something", but the message I hoped to convey through this event was that Onahama has taken a step towards regeneration. The venue of Onahama Shiome Cultural Exchange Center had suffered terrible damage at the hands of the tsunami, but the day before the event, we called volunteers to help clean up the mud, install an electric generator. and set up lighting in preparation for the event the next day. The musician "Kururi" who ten years before had shot a promotion video on the coast of Iwaki City was also one of the participants, and even though it rained heavily on the day, a great number of local people gathered."

The words and images of "Fukushima" appearing in the news fill us with anxiety and sorrow. However, behind these images there are people getting on with their lives, there is culture, and the creation of new things. What "MUSUBU" transmits is "a message conveying the treasure of

"I think "MUSUBU" is always trying to do "something exciting". Rather than being "for an individual", or "for someone in trouble", we are placing importance on whether the things we are engaged in are exciting or not. Through this activity we hope that all whom get involved can share in this excitement, which can be positively promoted to others.

당사자가 되어 처음으로 깨닫다 .

지진 후, 단번에 그 이름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 '후쿠시마' . 부정적인 이미지만 이 전해져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을에 있는 '좋은 것 , 보물'을 발신 하자는 의도로 활

이는 근제가 쓰고 . 그것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 출신자들로 결성된 지역 활성화 프로젝 트【MUSUBU】'다 . 멤버인 스에나가씨는 이와키시에서 Fair Trade (주역 : 개 발 도상국들에게 불공평한 무역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운동 . 대안 역으로도 불리워진다.) 의 원두 커피를 판매하는 '주식 회사 ethicafe'의 대표

스에나가씨의 지원 활동은 지진 직후 【MUSUBU】가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고에다가의 기업으로 시킨 그가 (MOSDO) 기술으로 시키어 있는 로 거슬러 간다.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첫째날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때는 집에 머물렀었는데 다음 날 또 하나가 폭발하면서 "여기를 떠나자" 고 해서 도쿄에 사는 오빠 집으로 피신했었어요. 그러나 지역과 동네 친구들로 부터 "지진으로 인해 물 식량이 전혀 없다"고 듣게 되었죠 . 그래서 '(식량과 물자를) 가지고 다시 돌이

나 고 생각했습니다. 트위터 (twitter) 에서 물자를 모으고, 운전해 주실 분 , 트럭을 빌려주실 분을 모 집한 결과 ,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었고 트럭 1 대 분의 물자와 운전해 주실 분 을 확보했어요 . 바로 오나하마를 향했고, 다음에는 물자를 정리하는 일을 도와줄 자원 봉사자들을 찾는 글을 트위터에 써서 협력을 호소했다. 그랬더니 이 동네에 사 는 젊은이 약 15 명이 장갑과 마스크 차림으로 모여 준 것이다. 이후에도 지원 물자 는 해도 어구 1.6 아이 등의 이 마르게 네크고 보다는 것이다. 아무나고 지는 물까 의 배포 및 무료 식사제공 등의 일을 했었지만, 조금씩 시간의 경과와 함께 피해 지 역에서 필요한 일들도 변해갔다. 4 월 13 일 , 일단 지원 몰자를 모으고 배포하던 시

람들을 해산 시키고 다음 단계의 활동을 시작했다 "복구, 그리고 부흥 활동하는 일에만 원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지역을 활성화 하는 일도 염두해 활동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활동 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이름을 정해, 지역 분들도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게 '지역 활성화 프 로젝트 [MUSUBU]' 의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역·MUSUBU는 일본어로 도찍트 [MUSSUBD] 의 어림으로 발표했습니다. (구역: MUSSUBD 다 달란어보 묶다, 맺다'라는 의미.) 이 포로젝트 이름은 '사랑, 지역, 그리고 세계를 맺는다' 혹은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재해를 통해 처음으로 스스로 가 이번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떻게 해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 하는 생각이 무엇 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느낀 겁니다. 정보를 발신하고 , 앞으로도 '후쿠시마에서 일 어나는 일들'을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가 보물을 전하는 메시지로

|와키에서의 밝은 뉴스를 세계로 발신하기 위해 , 【MUSUBU】에서는 음악 이

벤트, 스포츠 이벤트, 가설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 한 환경 구축'을 기획하고 있다. 6월 26일에는 지진 · 쓰나미 피해를 입은 오나하 마 시오메 교류관에서 'Hooked on Iwaki Vol.1 ~ 오나하마 시오메 교류관을 까 끗하게 청소하여 음악을 듣자 ~!' 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개최했다 . 물론 아직 진 자에게 6보이와 되게 들어 : '' 나는 이르고도 이르고를 가게되었다. 를 난 어구 년 흙이 남아 있고 , 전기도 없는 이 장소를 정비하는 일 부터 시작했다 . "'Hooked on' 에는 '몰두한다 , 빠진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 이 이벤트를 계기로

오나하마가 부흥 • 재건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을 메시지로 발신했으면 좋겠 지어마/구구의 ·에도을 하게 같습니다. 것을 배가시자로 할 만자는 다 장어요. 그리고 여기 이벤트 장소인 교류관은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날인 25 일, 자원 봉사자들 덕분에 쌓였던 진흙을 청소하고 , 발전기를 넣고 , 조명을 살 치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 10 여년 전에 이와키시의 해안에서 뮤직 비디오를 촬영 했던 뮤지션 '쿠루리 (Quruli)' 도 참여해 주었고 , 당일은 비가 많이 왔지만 많은 ㅈ 대한 파시한 구구이(Cubin) : 로양에 구요요., 8 글은 되기 많이 있지만 않는 지 객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TV 나 신문 등 이른바 '뉴스' 속에 등장하는 '후쿠시마' 란 글자는 불안과 슬픔을

상상시키며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다 . 그러나 그 반면에는 거기에도 사람들의 생활 이 있고 , 문화가 있으며 , 새롭게 태어나는 그 무언가도 있다 . 【MUSUBU】가 발신하려는 것은 , 이런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보물을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MUSUBU】에서는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게 히 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도움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는'일들 보다는, 먼저 그것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가 설레이고 홍얼거리며 즐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소중히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참여해주신 분들이 함께 즐기게 되고 , 결 과적으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전해진다면 좋겠습니다

成了当事人之后才终于了解的事

地震之后,"福岛"这个名字一下字成了全世界的焦点,在几乎是一面倒的负面消息中,出现了一个希望将自己的家园拥有的"好的一面以及魅 "等讯息传送出去的团体。那就是出生于福岛县 IWAKI 市小名浜的大 伙所组成的「地区活性化企画案【连结】」。其中一个成员末永先生也是在 IMAKI 市从事贩卖公平交咖啡豆的「株式会社 ethicafe」的代表。未永先生的援助活动可追溯到地震发生之后的不久,在【连结】成立之前。

「幅射事件发生之后的第一天,家族们开了一个会议商讨,当时大家都 还留在家中,但是第二天又发生了爆炸事件,于是决定"离开这儿吧"到 住在东京的哥哥那儿避难。不过,一听到家乡的朋友们告知"地震后完 全没有任何物资"的消息之后,就变得坐立难安,最后决定"自己将(物 资)运送回去"

就在推特上面募集了物资、卡车、司机之后,集结了100名人力、约1 台卡车分的物资,也确保了司机人选后就立刻往小名浜出发。另外又在推特上募集了帮忙分送物资的人。于是集结了当地 15 位左右的青年,他们 戴着白色工作手套以及口罩来帮忙。之后也进行了援助物资的发放以及炊 事等多项活动。可是,慢慢的需求却起了变化, 4月13日援助物资部队 先行解散, 开始了接下来的活动。

「我所想的是,不只停留在重建、恢复原貌,而是将视野放在长期性的均 区活性化这个概念去进行活动。我想,今后进行活动,若能有个组织的名称,那么地方人士们也比较容易记得,于是『地区活性化企画案【连结】』 就此诞生。正如名字所代表着的意义"连结人与地区与世界"。由于这次 的地震灾难,我第一次成了受难者。重新的,我深切的体认到"要如何让 别人关心我?"是很重要的。我不断的发送讯息,希望今后持续的关注

让传达魅力的讯息,取代"救救我"的讯息

应该要从 IWAKI 发送正面阳光的新闻给全世界才对。【连结】正进行几 个企画,像是音乐活动、体育活动、制造一个能让搬进临时住宅居住的 人们相亘交流的场所。6月26日在受到海啸催残的【小名浜潮目交流馆】 内举办了一场『Hooked on Iwaki Vol.1~将小名浜潮目交流馆打扫干净 大家来听音乐! ~』的活动。会场还残留有泥泞,当然也还没有电,但是 透过整顿打理当作一个起头。

"Hooked on"有着迷、迷恋的意思,若能将这次的活动当作契机,将小 名近已终出访向重建之路的讯息传送出去。那该有多好。这次利用来作为 会场的【小名浜潮目交流馆】受到了海啸的重创,但是,前些日子 25 日 志工们呼朋引伴、清除泥泞、装置发电机、点亮了昭明、准备第二天活动。 之日使用。大约在 10 年前曾经在 IWAKI 海岸边拍摄过一场营销影片,我 们也邀请了当时的音乐家"KURURI"到场参加,当天虽然下起了大雨,但 是,仍然有许多当地的居民们来参加。」 虽然, 在电视或报纸上, 也就是所谓的"新闻"中出现的"福岛"这个文

字,总给我们不安以及悲情的联想,不过,在其周边却也有着在那儿生活 着的人们他们的生活、文化以及新生的种种。【连结】所要传达的正是隐 「【连结】常常都想着一些令人兴奋的点子,与其说是特别为了谁,或是因

为谁有困难才去行动,我们重视的是能否让参与其中的我们感到振奋人心。 如此一来,参与我们的各位也能一起振奋人心,若能将将这份热情传达给

地域活性プロジェクト【MUSUBU】福島県いわき市と東 京を拠点に活動中。地域活性活動の企画・運営、イベント 企画・運営、商品のコラボレーション企画や開発、PRも行 う。オリジナルアイテムを販売するOnlineShop (http:// musubu.shop-pro.jp/) もオープン。 ▶ URL: http://musubu.me/

[Community Activation Project "MUSUBU"] With active bases in Iwaki city, Fukushima and Tokyo, MUSUBU is organizing and managing community action, running events, supporting product collaborations and promoting the town. You can also find original goods on their

URL: http://musubu.shop-pro.jp/



